



김해숙 작 '가을나들이'

전통도예기법 현대적 해석

'호예도회' 회원전 11일까지 무등갤러리

호남대학교 대학원 예술디자인과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호예도회'(회장 김해숙) 회원전이 5일부터 11일까지 무등예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전남 주요 무형문화재 청자기능 보유자 김경진씨와 대한민국 전통도자기 공예 기능보유자인 김옥수씨 등 회원 9명이 참가한다. 청자와 분청사기 등 전통도예 작품을 비롯해 전통 도자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생활 도자기와 도자편들을 이용한 설치작품 등 30여점이 전시된다. 회원으로 김민숙, 김숙희, 김은영, 라필주, 박은미, 이화, 이희정, 정기봉, 차정화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리톤 김홍석 독창회

7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바리톤 김홍석(사진) 독창회가 7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의 한국 가곡으로 꾸미는 이번 공연에서 김씨는 '비목', '청산에 살리라' '논밭들' '가시꽃 사랑' '전남대와 독일 뉘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권현(피아노), 박기보(바이올린), 박후남(첼로)씨 등이 함께 출연한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작가 76명 '광주이야기'

'어린 시절의 꼬까신을 사러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보리밥을 드시던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술덧 보충보충했던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삶의 기억을 담은 광주 소시민들의 작품이 짙은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는 비엔날레에서 첫선을 보인다.

주제별로 작품을 제작, 전시한다. 광주에 태를 묻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덧자리 별곡'에서는 주부 박인숙씨가 '쌀밥과 보리밥'을 주제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유문자씨는 곡성역에 대한 추억을 작품에 담았다.

무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무등산 별곡'에서는 정두례씨가 자신의 남편과 첫 만남을 가졌던 추억을 수박으로 형상화했고, 김수진 양 등 3명의 학생들은 '무등산의 별칭에 대한 유래'를 담은 벽화를 그렸다.

'동네별곡' 등 소시민 삶 자유롭게 표현 8일부터 중외공원 툽립 숲길서 전시

'내살별곡'에서 사립이 신정덕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공부에 대한 집념을 놓지 않았던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주부 이명희씨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음악으로 들려준다. 가족애와 가정사를 주제로 펼쳐지는 '우리집 별곡'에서 양미숙씨는 할머니를 비롯한 3대 가족 구성원 36명이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를 녹음한 '가게도'를 전시한다.

비엔날레는 시민 작가들의 작품 제작을 돕기 위해 전교 필 협력 프로그램과 더불어 '포스터, 정보람, 김수정, 김아름, 임선이, 천병준씨 등 코드네이터를 배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민 작가 김수정씨 작품(왼쪽)과 '동네별곡'에 참가한 주민들이 공동 제작한 '광주의 얼굴'

한국무용가 김미숙 춤 발표회

'하얀눈물' 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한국무용가 김미숙(하나무용원장·사진)의 춤 발표회가 6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2004년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하얀눈물'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인의 고단한 삶과 슬픔을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 또 이번 공연에서는 태평성대, 강강술래, 천지의 노래 등 군무와 변재진·배강원 양 등 동아공주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지며 송준영(현량무), 정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재단(허튼 살풍이췘), 정영래(삼아춤... 폴인)씨 등 김씨의 은사들이 함께 참여, 무대를 빛냈다. 조선대 무용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광주한국공연구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규모의 각종 무용대회에서 안무상과 지도상을 수차례 수상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제2회 광주일보 문학상 공모. 신춘문학회원 대상, 300만원 고료.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광주일보 문학상'이 올해로 2회째를 맞습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46년 동안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배출된 200여명의 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광주일보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자연의 빛깔 신비한 세계. '천연염색 국제전' 6~12일까지 구 전남도청 전시장.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 3국의 천연염색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천연염색 국제전', 6~12일까지 구 전남도청 전시장. 천연염색문화상품 디자인협회(협회장 이상필·동시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천연염색 국제전'은 '자연의 빛깔 신비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국 28명을 비롯해 대만 4명, 일본 1명 등 작가 33명이 출품한 섬유 미술작품과 문화관광상품 등 6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진경림 국립대만에 설계 교수, 마분배 국립대만공예연구소 연구원과 일본의 고소미씨 등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로, 해외 섬유공예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진경림 교수는 대형 천연 염색 염주 작품을 선보이고, 마분배 연구원은 동양적인 회화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일본의 고소미씨는 섬유의 조형성을 강조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에서는 이상필 동시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박운정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정예급 동시대 대학원 예술학과 겸임 교수 등이 참가한다. 이상필 교수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로 물들인 명주 작품과 실내장식 등 실용성을 가미한 작품을 출품한다. 천연염색문화상품 디자인협회는 이 전시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동시대대학교 문화관에서 순회전을 갖는다. 천연염색문화상품 디자인협회는 전통 공예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3회째 천연염색 국내외 교류전을 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상필 작 '천연염색'

첨단월계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신축, 각층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정.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인근 자연·생산지. 첨단 공장, 창고부지 '급매'.

금보부동산컨설팅. 매매·임대·투자. 신원대매. 건물매매. 부동산 컨설팅.

매일부동산. 공장. 모텔. 투자적합.

(주)홈부동산 리서치중개. 크게 다릅니다. 주요 물건 목록(여타 물건 다량 보유).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골프연습장 17억5천. 첨단지구 상업용지. 주택+대지. 수완택지개발지구. 신창택지 개발지구. 우량임야. 투자대매 수익성이 높은 건물에도. 첨단 상업용지 250평 500평.

속박사실. 아파트. 빌딩. 임대주택. 부동산. 매매·임대·투자. 부동산 컨설팅.